



## 열악한 북한군 복무환경과 남북군사통합

김 의 식  
(북한 연구가)

### 남북통일시 군사통합의 문제

통일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가 통합되는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통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남북한 군대는 1950년 6.25전쟁이후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군사적인 충돌로 상호 적대심이 강하게 남아 있고, 병력과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화생무기 등 비대칭 전력분야에서도 북한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일이후 한국군 주도하에 북한군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병력·장비·시설·교육훈련·인사관리·모병 등 분야별로 통합에 대

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한국군 주도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군이 사용하던 무기체계·전투장비·군사시설 등은 대부분 폐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군 병력들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무장 저항세력으로 변해서 군사통합 뿐만 아니라 통일의 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군사통합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 되었을 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병제도, 복무와 관련된 규정, 사기 및 복지대책, 군기·군법 및 질서 유지 대책,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 등 남북한 군대 복무환경의 현실태를 먼저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

## 남북한 군대 복무환경 변화과정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남쪽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북쪽에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선포하고 창군식 행사를 가졌으며 남한은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행정부의 정식부서로 되면서 국방경비대가 1948년 9월 1일부로 국군에 편입, 육·해군부대의 증편과 해병대의 창설을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되면서 군대 창설이 완료되었다.

창군 초기 남북한 군대의 복무환경은 유사하였다. 창군 초창기에는 남북한 모두 군대조직을 편성하고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므로 장병 개개인의 복무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정전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 전후복구와 경제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국방분야는 무기체계의 현대화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남한은 ‘일면국방·일면건설노선’을 채택하여 민간·군수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킨 결과 국가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군인들의 복무환경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에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

후 국방사업은 전당,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이므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김일성이 강조함에 따라 GNP의 10~20% 수준까지 국방비에 지출하는 등 기계공업, 특히 병기공업의 생산력 확충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군수산업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북한군의 복무환경도 점차 열악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1일 급식량이 줄어들고 병영생활에 필요한 보급품 지급이 감소되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어 전역후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 소년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징병 신체검사 합격기준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민간산업시설 건설현장과 농사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휴가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상급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군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인들의 급식상태와 주거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였으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권침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복무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 병사 총원과정

한국군과 북한군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분별 모집대상, 입대 시기, 복무기간, 만기복무후 진로 등은 서로 상이하다. 북한은 헌법 제 86조에서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 회의에서 기존의 지원제를 전민복무제 즉 징병제로 변경하여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징집)대상자로 등록하고, 고등중학교 6학년(만 16세)때에 시·군 인민병원과 도 인민병원에서 2차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키 148cm, 체중 43kg, 시력 0.4이상이다.

〈표 1〉 남북한 징병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군	북 한 군
징집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7~20세의 고등중학교 이상 졸업자</li> <li>대학교 3학년이하 재학자중 초모 희망자</li> <li>23세 이하로서 직장에서 추천된 자</li> </ul>
징병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li> </ul>
입대연령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만 20세</li> <li>연중 수시(본인 희망, 병무청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만 17세</li> <li>연 1회(9~10월, 군사동원부 계획)</li> </ul>
징병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장 155cm이하, 체중 45kg이하 등 신체검사 불합격자</li> <li>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li> <li>6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li> <li>탈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장 148cm이하, 체중 43kg 이하 등 신체검사 불합격자</li> <li>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li> <li>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li> </ul>
복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군 : 21~24개월, 여군 :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군 : 10년, 여군 : 7년</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군은 부사관, 장교로만 임관</li> </ul>	

북한에서 징병 신체검사에 합격한 입대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직후인 9~10월에 행정 지역별 군사동원부의 결정에 따라 입대하지만 취업 등을 이유로 25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 특수분야 종사자 및 교육자 등 정책 수혜자들은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대후 지상군은 군단/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종별로 2개월간 신병교육을 받고,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각기 2~3개월간 교육받은 후 자대에 배치되는데 입대전에 1~2주간 준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서 제식훈련과 내무반생할, 사격훈련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병영생활에 대비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 간부 충원제도

북한군은 군대계급을 ‘군사칭호’라고 부르는데 장교는 장령급, 좌관급, 위관급으로 구분하여 소위에서 대원수까지 총 1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는 사병으로 3년 이상 복무 후 출신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 중에서 지휘관 추천과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병과는 2년제 군관학교를 졸업 후 임관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병과는 4년제 군사대학을 졸업 후 임관하게 된다. 군의군관·수의군관 등 특수 자격이 필요한 장교들은 민간대학에서 바로 선발하며, 간혹 복무성적이 우수한 부사관중에서 선발하여 전문군사강습소에서 1년간 교육시킨 후 보병부대 소대장으로 임관시키는 경우도 있다. 소위로 임관 후 대좌급까지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선발 후 상위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으나 장령급으로 진출시에는 발탁개념에 의해 조기에 진출할 수도 있다.

부사관의 경우, 북한군은 소속부대 공석에 따라 부사관학교 수료자중에서 선임순으로 진급시켜 활용하고 있으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및 임무가 특수한 경우에는 부사관학교 수료여부에 관계없이 공석에 따라 병사중에서 선임순으로 진급시켜 활용한다. 그러나 군의·수의 등 특수분야 부사관들은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병사중에서 선발하여 실무부대에서 직접 양성후 활용하고 있다.

## 병영생활 원칙과 교육훈련

북한군 병영생활에서는 군인의 기본자세로서 견지해야할 기본 덕목으로는 ‘인민군 군인선서 5개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끝없이 희생할 것만을 강요하며, 상급지휘관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고, 당이 추진하는 과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앞장서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투력 강화 5대 방침’을 통해 정신력을 배양하고 융통성 있는 전술전기와 사격술 등을 연마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을 통해서서는 군대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강조함과 아울러 군민일치와 부대내 상하간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의 표준일과는 기상후 아침운동, 세면 및 청소, 시사보도 청취, 대열검사, 조식, 오전상학, 중식, 오후상학, 조준연습 및 무기청소, 석식 및 분대생활 총화, 군중문화 시간, 중대장 일일 총화, 저녁 점검, 취침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일과내용에 내무생활과 군사훈련 외에 강도 높은 정치학습과 사상교양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저녁식사후 훈련이 없으면 대개 분대단위로 일과 총화와 전투력 강화 5대 방침,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등 군사규정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암송한다. 이처럼 북한 인민군은 일과 후에도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자유시간이 없으므로 전역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할 기회가 별로 없다.

## 휴가와 복지제도

북한군 규정에는 연 1회 15일간의 정기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 말자”는 구호 아래 거의 실시되지 않아 현재는 10년간의 군 복무기간 중 각급 부대 사정과 방침에 따라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다. 비정기 휴가로는 직계가족 사망시 특별휴가(10~15일)가 실시되나 통신체계 낙후로 사망통지서가 지연 배달되고 휴가 수속이 까다로워 장례식이 끝난 후에야 휴가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포상휴가(7~14일)는 훈련유공자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물자휴가(최장 30일)는 부대 내 필요한 물자들을 구해 올 능력이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허가한다. 외출(박)제도는 없으며 연 1회 휴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만해도 북한군의 급식상태는 양호하여 1일 주식 800g, 부식 1kg, 육류 80g, 기름 20g 등으로 3,200~3,500cal 정도의 영양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현재는 밥(800g)과 야채, 오이절임, 무, 고추 등으로 만든 반찬 두세 가지가 나오며, 육류와 생선은 비정기적으로 아주 귀하게

공급된다. 명절을 제외하면 별도의 특식도 귀한 편이며 매일 일정한 간식도 없다. 부식류가 부족하게 공급됨에 따라 부대별로 텃밭을 일궈서 야채를 재배하거나 어업을 해서 어패류를 채취하며, 염소나 돼지 등 가축을 길러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허약해진 군인들을 위해 연대급 부대에 중대규모의 보양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부대 내에서 사병들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담배는 필터 없는 담배가 한 달에 22갑 정도 지급 된다.

그밖에 북한군은 15개의 후방 및 중앙병원과 9,000여 개의 침상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급에는 환자를 1차로 치료할 수 있는 위생지도원이라는 부사관이 있으며, 대대급 및 연대급 군의소에서는 간단한 외상치료를 할 수 있고, 사단급 군의소에서는 간단한 수술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15일 한도내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은 전형적인 고질병이 아니면 사단급 군의소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5일 이상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군단 야전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하는데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남북 군사통합에의 시사점

한반도 통일의 완성은 안정적인 군사통합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사통합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는 병력 통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모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북한 인민군은 전민복무제를 시행하여 여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 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전투기술은 충분히 숙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 발육이 미숙한 어린나이에 입대시켜 장기간 복무토록 함으로써 무거운 전투장비 운용능력이 저하되고 민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다.



북한에서는 군복무를 마쳐야 대학 진학과 입당 기회가 많이 부여되었으므로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군 입대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입대를 회피하거나, 탈영병이 증가하는 등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약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군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0여년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군대 복무환경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한국군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선진화된 복무환경을 구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군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무하고 있으나 선군정치를 앞세워 북한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으로는 남한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권층으로 군림해온 북한군 일부의 예상되는 저항으로 인해 군사분야의 통합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통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해온 북한군인들에게 한국군으로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일부 통합 반대세력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군의 복무환경을 한국군의 시각에서 평가해서 한국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시에 개선하겠다고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군대의 복무환경을 객관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한국군이 높은 수준에 있지만, 남북한 사회에서 군인들이 느껴온 상대적 만족도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비교한 것을 기초로 풍족하고 자유로운 한국군과 통합되었을 때 북한군인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합에 순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北韓